

## 朝鮮 科試의 箴銘頌 研究\*

김 광 년\*\*

### < 目 次 >

- |   |                     |
|---|---------------------|
| I. 머리말                                    | III. 조선 과시의 잠명송 출제  |
| II. 조선 과시의 잠명송 관련 규정<br>및 잠명송 출제를 둘러싼 논의들 | 경향과 그 의미<br>IV. 맺음말 |

### < 국문 초록 >

이 논문은 조선 시대 科試에서 科文六體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箴銘頌 세 문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考究하였다.

잠명송은 조선 시대 법전에 文科 初試 및 殿試, 進士試 初試에 출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문과 초시 및 진사시 초시에서는 전혀 출제되지 않았고, 현전 자료는 모두 문과 전시에서 출제된 것들이다. 잠명송의 출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조선 후기에 다양한 논의들이 제출되었는데, 잠명송의 난이도와 관련하여 합격자를 다양화(주로 鄉儒에 대한 배려)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다양한 文體를 출제하자는 주장과 함께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肅宗 年間에는 과시 출제가 四六文에 집중된 점이 비판받으면서 잠명송 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점이 특징적이었으나, 잠명송이 분량이 짧아 짓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이로 인해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유행으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NRF-2019S1A5C2A02082732), 2022년 한문고전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 light1979@hanmail.net

합격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조선 과시에서 출제되었던 잠명송의 문제 사례를 종합하여 통계를 내 보면 우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잠명송의 출제 비중이 커져 갔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과시 출제 문체의 다양화라는 내적 요인과 함께, 제도의 문란이라는 조선 후기의 사회적 문제점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잠명송 자체로 보면 잠명송의 출제 비율은 시기에 따라 頌→箴→銘의 순서로 유행하였고, 송과 잠의 경우에는 비정기 과시에 주로 출제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비율을 따져 보면 명이 과반을 차지하여 출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명은 궁중 건물을 주제로 자주 출제되었고 중복 출제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는 등, 조선 후기 과거제도가 점차 무너져 가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科舉, 科試, 箴, 銘, 頌, 科題

## I. 머리말

이 논문은 조선 시대 과시의 시험 과목 중 흔히 箴銘頌으로 并稱되는 箴, 銘, 頌 세 문체가 조선 시대 과시에서 어떤 위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 시대 科試의 시험 과목으로 흔히 이야기되는 것은 이른바 ‘科文六體’로 불리는 詩, 賦, 表, 策, 義, 疑(또는 論)<sup>1)</sup> 등이다. 현전 자료들을 통해 확인되는 과시의 시험 문제 및 답안들은 이 ‘과문육체’ 중의 하나인 경우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나 현전 과문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과문육체’ 외에도 다양한 문체들이 과시에서 시험되었음을

1) ‘과문육체’라는 표현의 始原은 분명치 않으며 지칭하는 문체들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 표현이 문헌 상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이후의 일로 생각되거나 지금처럼 일반적인 표현으로 널리 쓰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과문육체’는 詩, 賦, 表, 策, 義 외에 나머지 하나는 疑 또는 論이 제시된다. 이를테면 丁若鏞은 『牧民心書』에서 과문 육체를 “詩賦表策論義, 謂之六體.”(『與猶堂全書』第五集 政法集 第二十三卷, 『목민심서』, 『禮典六條課藝』, 韓國文集叢刊 285, 482면)라고 한 바 있다.

알 수 있는데, 본 발표에서 관심을 가지는 잠명송 역시 그중 하나이다. 잠명송은 과문육체만큼은 아니지만 조선 시대, 특히 조선 후기 과시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꾸준히 출제되었던 과목으로, 과문육체를 제외한 나머지 과시 과목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 과시를 온당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명송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잠과 명은警戒의 뜻을 담은 문체로서 전통적으로 유학자들이 애호하였던 문체이고,<sup>2)</sup> 송은 주로 군주에 대한頌祝의 뜻을 담고 있어儀禮에 자주 활용되었던 문체이다. 잠명송 자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sup>3)</sup> 과시의 일부로서의 잠명송을 다룬 논문은 단 한 편이 제출되어 있을 뿐이다.<sup>4)</sup>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조선 시대 과시에서의 잠명송에 대한 논의, 잠명송 출제 경향과 그 의미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조선 과시의 잠명송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考究해 보고자 한다.

## Ⅱ. 조선 과시의 잠명송 관련 규정 및 잠명송 출제를 둘러싼 논의들

### 1. 조선 과시의 잠명송 관련 규정과 그 변천

조선 시대 과시에서 잠명송의 출제 규정은 조선 전기에 이루어진『經國

2) 특히 송대 유학자들의 잠, 이를테면 程頤의 「四勿箴」이나 秦伯의 「夙興夜寐箴」 등은 수양의 지침으로 조선 시대 문인들에게 애호되었으며, 조선 문인들 역시 유가적 수양의 뜻을 담은 잠명 작품을 다수 창작하였다.

3) 箴銘類 일반에 대한 몇 가지 연구 성과를 例擧해 보면 아래와 같다. 김동준(2004); 「한국 器物銘의 역사와 성격에 관한 小考」, 『진단학보』 97, 진단학회, 2004; 강민구(2006a; 2006b); 김성훈(2009); 김종철(2015); 김윤조(2019) 등. 頌에 대해서는 김종철(2008) 참조.

4) 황만기(2013). 이 논문은 잠명송의 문체적 특성을 개괄한 뒤, 奎章閣 소장 『科試箴銘頌』과 『頌引箴銘集抄』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자료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주로 형식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몇 편의 예시 작품을 분석하였다.

大典』부터 있어 왔고,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먼저 조선 시대 법전의 토대가 되는 『경국대전』의 잠명송 관련 규정을 살펴 본다.

<文科>

初試：中場에서 賦·頌·銘·箴·記 중 한 편, 表·箋 중에서 한 편이다.

殿試：對策·表·箋·箴·頌·制·詔 중 한 편이다.

<進士>

初試：賦 한 편, 古詩·銘·箴 중에서 한 편이다.<sup>5)</sup>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과 초시 증장에서 잠명송은 기와 부와 함께 출제 과목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전시에서도 대책, 표전 등과 함께 잠과 송이 출제 대상 과목의 하나였다. 또한 진사시 초시에서도 고시와 더불어 잠, 명은 선택 과목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전 방목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해 보면 문과 초시나 진사시 초시에서 잠명송이 출제되었다는 기록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잠명송은 오로지 문과 전시에서만 출제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문과 전시에서도 1513년(중종 8)의 別試 문과에서 『書經』 「說命」 편의 「帝賚良弼」을 송의 문제로 출제한 것이 최초 사례<sup>6)</sup>이고 그 이전에는 잠명송이 문과 전시에 출제된 사례가 없다.

결국 위 『경국대전』의 규정 중에서 문과 초시 및 진사시 초시의 출제 규정은 사실상 死文化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1746년(영조 22)에 반포된 『續大典』에서는 이 두 규정은 폐지되기에 이른다.<sup>7)</sup> 『속대전』에서

5) 『경국대전』 「禮典諸科」,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시대 법령자료 DB, <http://db.history.go.kr/law>, "(文科) 初試：中場, 賦·頌·銘·箴·記中一篇, 表·箋中一篇." "殿試：對策·表·箋·箴·頌·制·詔中一篇." "(進士) 初試：賦一篇, 古詩·銘·箴中一篇."

6) 이 문제는 방목 등의 자료에 남아 있지 않고, 당시에 별시에 응시했던 金絿(1488~1534)의 『自菴集』, 韓忠(1486~1521)의 『松齋集』 등에 당시에 제출하였던 답안이 수록되어 있어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시험에서는 한층이 1등 1인으로 卮元, 김구가 2등 1인으로 亞元 급제하였다.

잠명송을 문과 초시 및 진사 초시의 과목에서 제외한 이래로 해당 규정은 조선 시대 내내 유지되었다.

『속대전』에서 문과 전시를 제외한 과시의 잠명송 출제 규정을 폐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전 사료에 관련 논의가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그 배경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영조대에 과거제도 개혁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유명무실했던 문과 초시 및 진사 초시의 잠명송 관련 규정을 자연스럽게 삭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기초는 이후 1759년(영조 35) 9월 18일에 반포한 『科弊釐正繪音』에서도 이어진다. 『과폐이정윤음』은 그 이전 시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과거 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다년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영조가 반포한 것으로, 과거 제도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sup>8)</sup> 그런데 이 윤음 내용 중에 잠명송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 눈길을 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科場이 혼잡한 것은 또한 세 글자의 제목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지금 이후로는 書題를 取稟할 때 특별히 잠, 명, 송은 제외하고, 이 뜻을 一體로 規式을 정하라.<sup>9)</sup>

잠명송을 '세 글자 제목[三字之題]'이라 표현한 것은 통상 잠명송, 그중에서도 명의 제목이 세 글자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10)</sup> 영조의 이 윤음에서는 어떤 시험에서 서제를 취품할 때 잠명

7) 『속대전』 「예전·제과」의 「式年文科初試」 조목에 “中場頌銘箴記 今廢”라 하여 식년 문과 초시의 시험 과목은 부 1편과 표전 1편으로 간소화되었고, 「式年進士初試」 조목에서도 “銘箴 今廢”라 하여 시험 과목이 부 1편, 고시 1편으로 간소화되었다.

8) 이에 대해서는 박현순의 논의가 상세하여 참고가 된다. 박현순(2014), 131~172면.

9) 『御製科弊釐正繪音』, 규장각 소장본, “場中淆雜 亦由乎三字之題 今後則書題取稟 特除箴銘頌 此意一體定式.”

10) 특히 조선 시대에 출제되었던 명의 사례들을 보면 궁중의 건축물을 명의 문제로 출제한 경우가 두드러진다. 이를테면 1736년(영조 12) 講聖試에서는 ‘明倫堂’이 출제되었고, 1777년(정조 1) 增廣試 殿試에서는 ‘春塘臺’가 출제되었다. 건물명을 銘題로 삼은 사례는 조선

송을 제외하라는 것인지가 명시되지 있지는 않으나, 이미 13년 전 『속대전』을 반포하면서 문과 초시 및 진사 초시에서 잠명의 출제 조항을 삭제 하였으므로, 영조가 의도한 것은 전시에서의 잠명송 출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과폐이정운음』은 불과 7년 후인 1766년(영조 42)에 영조 자신의 손으로 폐지되기는 하나 잠명송의 출제를 제한하였던 영조의 조치는 이후에도 이어져, 정조가 즉위하는 1776년까지 18년 동안에는 문과 전시에서 잠명송이 출제되지 않았다.

## 2. 과시에서의 잠명송 출제를 둘러싼 논의들

과시에서 잠명송을 출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 후기에는 조정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이는 조선 과시에서 잠명송의 위상과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잠명송의 출제와 관련하여 조선 시대에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은 잠명송의 난이도 문제였다. 비교적 편폭이 긴 다른 문체와는 달리, 잠명송은 4언으로 17~18聯 정도를 지으면 되었기 때문에<sup>11)</sup> 비교적 쉬운 문체로 인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잠명송을 출제하면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져 요행으로 합격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① 許積이 말하기를, “잠, 명, 송은 구절 숫자가 비록 적어도 또한 절로 편을 이루기 때문에, 이로써 선비를 시험하면 요행이 반드시 많아질 것입니다.” 하였다.<sup>12)</sup>

후기에 수십여 건이 확인된다.

11) 대개의 과문이 그러하듯, 잠명송에 대한 형식적 규제는 명문화된 것이 없다. 다만 관습적으로 4자구를 위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근대 鄭萬朝의 『科擧及科文』(규장각 소장본)에서도 잠명송에 대해 “箴銘頌等, 只出於御題, 皆用四字, 或並引. (近俗引必以四六)”라고만 설명해 놓고 있다. 그러나 4자구가 아닌 3자구를 사용한 명의 사례도 확인된다. 황만기(2013), 179~181면 참조.

② 金在魯가 말하기를, "...이른바 四字는 옛 법대로 지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文士가 가장 성대했던 孝廟 때에도 오히려 요행히 급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래는 오죽하겠습니까. 잠, 명, 송은 句의 수가 많지 않아 지어 올린 뒤에도 시간이 조금 이른 탓에 同接끼리 도와서 요행히 급제하는 자가 많이 나왔습니다."<sup>13)</sup>

③ 吳彥胄가 아뢰기를, "근래 온갖 문체 가운데 모두 과거에 요행히 급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잠, 명, 송에서 가장 요행히 급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였다.<sup>14)</sup>

①은 숙종대, ②와 ③은 영조대의 자료로, 두 자료 공히 잠명송은 분량이 적기 때문에 잠명송을 출제하게 되면 요행으로 급제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②에서는 同接끼리 서로 의논하여 답안을 제출하는 문제<sup>15)</sup>를 거론하면서, 먼저 제출한 사람이 동접의 다른 사람의 제출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③에서는 아예 대놓고 잠명송에서 요행으로 급제하는 사람이 많다고 할 정도였으니, 조선 후기에 과시 문체로서의 잠명송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어떠한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짓기 쉬운 잠명송보다는 공부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表나 箴을 더 많이 출제해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俞拓基가 말하기를, "근래의 과거에서는 잠, 명, 송, 부를 연달아 출제하여 요행의 문이 크게 열렸으니, 요행으로 급제하는 사람이 근래보다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표와 책을 출제한 후에야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sup>16)</sup>

12) 『승정원일기』 숙종 2년(1676) 1월 24일, "積曰, '箴銘頌, 句數雖少, 亦自成篇, 故以之試士, 則僥倖必多.'"

13) 『승정원일기』 영조 12년(1736) 1월 15일, "所謂四字, 若以古法, 做得則好, 而今不然矣. 雖於孝廟朝文士最盛之時, 尚多有倖中者, 況近日乎? 蓋以箴銘頌句數不多, 製進之後, 日勢差早, 故所以同接相救, 而倖科多出矣."

14) 『승정원일기』 영조 12년(1736) 5월 7일, "近來百文中, 皆有倖科, 而箴銘頌, 最多倖科矣."

15) 이와 관련된 논의로 김동석(2015)이 있다.

하지만 표와 책의 경우에도 요령을 터득하면 비교적 짓기가 쉬워 변별력이 없다는 주장도 있었고, 鄉儒의 합격을 진작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잠명송을 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특히 京儒들의 경우 과문 짓는 요령을 일찍부터 익혀 합격이 향유에 비해 수월했던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sup>17)</sup> 경유들은 향유들에 비해 과거 대비를 위한 다양한 참고 문헌을 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고, 門閥이 높은 가문 출신들의 경우 그 가문에만 전해지는 과시 참고서가 존재하기도 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를 기반으로 경유들은 표, 책 등 비교적 짓기가 까다롭다고 여겨지는 문체들에 대해서도 彙集 등의 참고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향유들에 비해 훨씬 효율적으로 과문 창작 역량을 키워나갔다.<sup>18)</sup> 향유를 위해 잠명송을 출제하는 문체와 관련해, 정조는 향유를 우대하고자 잠명송을 출제한다는 의도를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어제의 殿試에서 銘으로 試取한 것은 대체로 먼 곳의 유생들이 사륙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나아갈 문체를 내서 이번에 뽑은 것이다.<sup>19)</sup>

한편,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사륙문 이외에도 다양한 문체들을 출제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잠명송을 과시에서 출제해야 바람

16) 『승정원일기』 영조 34년(1758) 8월 26일, “近來場屋, 連出箴銘頌賦, 倖門大開, 科甲之僥倖, 未有甚於近日, 必出表策然後, 庶幾得人矣.”

17) 이와 관련해서는 박현순(2014) 참조.

18)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1724) 10월 29일, “蓋駢儷之文, 卽是事大之文也, 固不可廢, 然其爲文也, 雖是不讀書之人, 剽竊章句, 足可優爲, 是故雖以如臣之魯莽, 亦嘗爲之, 至於決科矣. 對偶精妙, 見之似難, 而各有彙集, 片時裒合, 此所以遐方讀書之人, 嘗不利於表者也, 其弊誠不少矣.” 彙集은 과시 참고서의 일종으로, 과시 답안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절을 주제별로 모아 놓은 책이다. 특히 科表 대비를 위한 휘집들이 조선 후기에 널리 유행하였던 바, 표전을 짓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長短 對句를 한데 모아 놓아서 휘집만 있으면 어떤 주제에도 대응하여 분량을 채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科策의 경우에도 표문의 구성 요소별로 다양한 예문을 모아 놓아서 舉子들이 참고하도록 다양한 유형의 참고서들이 존재하였다. 이들 휘집 및 다양한 과시 참고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요구된다.

19) 『승정원일기』 정조 8년(1784) 9월 27일, “昨日殿試, 以銘試取, 蓋以遐方儒生, 不閑四六之故, 爲其易就之文, 有是舉耳.”



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는 특히 숙종대에 빈번히 제기되었는데, 숙종대의 과시 출제가 사륙문에 집중되었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해된다.

先朝 때 庭試나 講聖試의 書題는 賦, 表, 論, 策, 箴, 銘, 頌, 制 8건 중에서 때에 따라 다양하게 출제되어 애당초 定式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선비들은 따라갈 바가 없이 어느 쪽에 치우친 장기를 지니는데 힘쓰지 않고 文理가 크고 넓으며 주변으로도 두루 통해야만 뽑힐 수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10여 년 동안 출제한 科題는 반드시 사륙에 있으니, 서울 선비 중에 과업을 전공한 자가 임금의 뜻이 있는 곳을 엿보아 사륙문에만 능통한 것을 과거 급제의 첩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개 그 작품의 공교로움과 즐렬함은 문자의 장단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힘이 많아 자질이 뛰어난을 병폐로 여기고 뜻이 얇고 체제가 경박한 것을 숭상하여, 類抄를 표절하고 謄錄대로만 하면서 온 세상이 그에 휩쓸려 함께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향유로서 고서를 많이 읽고 이치와 문맥을 깊이 얻은 자가 매번 억울한 일을 당하고 京士의 나이 어린 신진으로 공명을 조금 이해하는 자가 우뚝하게 급제를 점유하고 있으니, 文才가 옛날만 못 한데 과거 선발이 치우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sup>20)</sup>

이는 李龍徵(1650-1726)이 숙종 23년(1697)에게 올린 상소로, 숙종대에 사륙문만을 시험하여 생기게 된 폐단과 그 원인을 비교적 상세히 분석하여 숙종에게 進言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숙종 이전에는 다양한 문체를 시험하였으므로 다재다능한 인재들이 과거에서 선발되었으나, 숙종대에 와서 오로지 사륙문만을 시험하다 보니 경유들이 요령을 익혀 과거에 뽑히고 오히려 진짜 역량을 지닌 향유들은 선발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숙종대 문과 전시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면, 총 29회의

20) 『승정원일기』 숙종 23년(1697) 12월 7일, “先朝時庭講聖書題, 以賦表論策箴銘頌制八件, 臨時雜出, 初無定式. 故當時之士, 無所適從, 不務偏長, 惟文理闊博, 曲穿旁通者, 可以得選矣. 殿下於十教年間所命科題, 必在四六, 京士之攻科業者, 竊矚上意所存, 以四六之專工, 爲科第之捷徑. 而蓋其制作之工拙, 不係文字之長短, 以力多質勝爲病, 以意淺體輕爲尙, 黜竊類少, 依樣謄錄, 舉世靡然, 同歸一臼. 是以鄉儒之多讀古書, 深得理脈者, 每見冤屈, 京士之少年新學, 稍解工程者, 得占巍選, 則無怪乎文才之不如古而科選之有所偏也.”

전시 중에서 부가 3회, 송이 1회, 잠이 1회, 표전이 16회<sup>21)</sup>로, 사륙문인 표전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상 전시에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책문인데<sup>22)</sup>, 숙종 연간에만 표전의 비율이 55%(문제가 남아 있는 것들로 한정하면 76%)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표전이 출제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런 논리에 따라 이용징은 향후 사륙문 외의 다양한 문체들을 번갈아 출제해야만 인재 선발이 올바르게 될 것임을 주장하였다. 영조대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었던 바,<sup>23)</sup> 영조 역시 사륙문 외의 다양한 문체들을 과시에서 출제할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Ⅲ. 조선 과시의 잠명송 출제 경향과 그 의미

#### 1. 잠명송 출제 비중의 확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 전기까지는 과시에서 잠명송이 출제된 사례를 찾을 수 없고, 중기 이후에서야 비로소 잠명송은 시험 과목으로 등장한다. 이마저도 법전의 규정과는 다르게 오로지 문과 전시에서만 출제되었다.

그런데 과시에서의 잠명송 출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되는 사실은

21) 나머지 7회는 시험 시행 사실은 확인되나 문제가 전하지 않는 경우임.

22)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전시는 예외 없이 책문이 출제되는 것이 관례여서 睿宗 연간까지는 100%의 점유율을 지니고 있다. 이후로 점차 다른 문제들이 출제되기 시작하면서 조선 시대 전체로 보면 책문의 점유율은 36.4%이다.

23) 이를테면 영조 즉위 직후인 1724년 10월 29일 夜對에서 李巨源이 “科場之文, 元不可定以一體, 賦表箴銘間互出, 使爲士者, 不知今科當出某文, 則自然爲務源之學, 此實近時痼弊, 故適因文體之言, 敢有所達矣.”라고 하여 이용징과 동일한 주장을 한 것을 들 수 있다. 영조는 이 말에 적극 공감하며 이후로 유념하겠다는 답을 하였다. 『승정원일기』 참조.

후대로 갈수록 잠명송의 출제 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자는 조선 시대 문과 전시에서 어떠한 문체들이 출제되었는지를 세기별로 조사하여 그 변천의 양상을 추적해 보았다.<sup>24)</sup>

왕대	출제 횟수	詩	賦	表箋 <sup>25)</sup>	策	論	箴銘頌	詔	미상 <sup>26)</sup>	잠명송 비율(%)
태조	2	.	.	.	1	.	.	.	1	0
태종	4	.	.	.	2	.	.	.	2	0
세종	10	.	.	.	8	.	.	.	2	0
문종	2	.	.	.	2	.	.	.	.	0
단종	2	.	.	.	2	.	.	.	.	0
세조	9	.	.	.	8	.	.	.	1	0
예종	1	.	.	1	1	.	.	.	.	0
성종	18	.	.	1	16	1	.	.	.	0
연산군	12	.	1	.	9	1	.	.	1	0
중종	50	.	2	8	21	3	7	1	.	14
명종	16	.	.	1	6	.	.	.	9	0
선조	35	.	.	7	14	.	.	.	14	0
광해군	11	.	.	.	7	.	1	.	3	12.50
인조	30	.	.	1	18	1	1	.	9	4.76
효종	12	.	.	2	7	1	.	.	2	0
현종	13	.	1	3	6	1	1	.	1	8.33
숙종	29	.	3	16	6	.	2	.	2	7.41
경종	7	.	.	3	2	1	.	.	1	0
영조	33	.	18	9	1	1	4	.	.	12.12
정조	24	.	5	5	3	2	8	.	1	34.78
순조	21	.	2	1	.	.	18	.	.	85.71
헌종	10	.	1	.	.	.	8	.	1	88.89
철종	7	.	2	.	.	.	3	.	2	60.00
고종	26	2	10	1	.	.	5	.	8	27.78
계	385	2	45	59	140	12	58	1	61	15.00

24) 이 도표의 작성은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과시 자료 DB 구축 사업 결과물의 도움을 받았다. 이 조사 결과는 현전 자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양상과 100% 일치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25) 표전을 함께 묶은 것은 표와 전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체이기 때문이다. 황제에게 올리는 것을 表, 왕에게 올리는 것을 箋으로 구분하는 바, 조선 과시에서 문체가 전으로 된

위 도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 전기까지는 잠명송이 문과 전시에서 출제된 사례를 전혀 발견할 수 없고, 중종대를 시작으로 해서 잠명송이 출제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영조 연간까지는 그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아서 가장 높은 중종 때가 14% 정도였는데, 특히 정조 연간부터 비중이 30%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순조, 헌종 연간에는 각각 86%, 89%에 달하게 된다. 이를 그래프로 圖示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를 통해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 이후로 전시에서의 잠명송 출제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잠명송과 비슷한 출제 비중을 지닌 표전의 경우와 비교해 본다면, 표전은 잠명송에 비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잠명송은 정조 연간 이후의 출제 비중이 확연히 차이를 보이며, 특히 순조, 철종 연간의 압도적 비중이 눈에 띈다.

표전의 경우는 事大를 위한 문체로서 조선 시대 전 기간에 걸쳐 책문만큼이나 중요시되었던 문체이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 것을 충분히 납득할

것은 대부분 조선 임금에게 올리는 전을 擬作하는 문제이다.

- 26) 미상은 시험 시행 사실 자체는 史料를 통해 확인되지만 해당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 및 답안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경우이다. 향후 자료의 발굴에 따라 미상의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만하다. 그렇다면 18세기 이후로 잠명송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일까?

아쉽게도 잠명송이 급격히 많이 출제된 순조, 헌종 연간에는 잠명송의 출제에 대한 직접적 논의를 찾을 수 없다. 다만 과거제 시행의 전반적인 흐름 및 이와 결부된 정치, 사회적 요인들을 다각도로 고려해 본다면, 잠명송의 비중이 대폭 향상된 것은 18-19세기로 갈수록 과거 제도가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점차 문란해져갔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점을 좀더 論究해 보자.

초기의 문과 전시에서는 時務에 능한 인재를 뽑겠다는 취지 하에 책문으로 시험보이는 것이 관례였다.<sup>27)</sup> 하지만 거자들이 책문 시험 시행에 대응하여 초집 암기, 유초류 참고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자<sup>28)</sup> 책문 이외의 문체를 시험보이는 것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문체들이 출제되면서 잠명송 또한 중종대 이후로 점차 출제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과거 본연의 목적(시무 역량 위주의 인재 선발)이 희석되어 버리면서 짧은 시간 안에 시험을 마칠 수 있는 잠명송의 비중이 확대되었던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응시자가 폭증하는 등의 요인에 의해 점점 제도를 원래 취지에 맞게 엄격히 시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편의상 답안 작성과 채점 등이 용이한 잠명송 등에 출제가 많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하겠다. 명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그 출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문제의 중복 출제 사례가 많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sup>29)</sup> 바꾸어 말하자

27) 이는 과거 제도가 시작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중국의 과사에서 전시 제도는 宋代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시험 과목은 책문 하나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과사의 전시에 대한 개괄적 고찰은 陶榕(1995) 참조.

28) 책문 시험을 위해 거자들은 다양한 주제의 책문이 수록된 책문 선집을 읽거나, 책문 작성 요령을 해설한 참고서류를 다양하게 참고하였다. 책문은 虛頭로부터 시작하여 篇終에 이르는 일정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구성 요소별로 작문의 요점을 제시하고 예문을 수록한 참고서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策型』으로, 책문의 구성 요소별 작문법과 예문 등을 풍성하게 수록해 놓은 책이다. 이 책에 대해서는 이상욱(2020) 참조.

면 古典에서 의미 있는 문젯거리를 찾아 출제하기보다는 편의에 따라 꺾내 건물을 주제로 한 명을 출제하는 경향이 증대되었던 것이다. 이는 결국 이는 조선 후기 각종 제도의 紊亂함이 과시에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考課와 관련하여 試官들도 채점이 까다로운 책이나 표전보다는 잠명송을 선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시의 경우는 아니지만, 1739년(영조 15) 3월에 행해진 親臨 調聖試에서 영조는 '耕根車'를 銘題로 출제하였고 7천여 장의 답안이 제출되었다. 고과 작업을 지켜보던 영조가 답안의 몇 구절을 살피는가 묻자 南泰溫이 4~5구만 읽어 보면 급제인지 낙방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어서 명은 일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채점하기가 더 쉽다고도 발언하였다.<sup>30)</sup> 알성시의 경우는 卽日放榜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제출된 답안이 많아도 당일에 합격자가 가려져야 했던 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채점이 용이한 문체를 더 선호하기 마련이었다.

한 가지 첨언하면, 위에서 언급한 因子들 외에 앞서 2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과시가 지나치게 표전 등의 특정 문체에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 잠명송의 출제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일정하게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잠명송의 출제가 조선 후기에 갑작스럽게 증가한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시대보다는 그렇지 않은 시대(주로 19세기)에 잠명송의 출제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29) 예를 들어 순조 연간에는 仁政殿을 주제로 한 명이 총 3차례(1813년(순조 13) 증광시 전시, 1816년(순조 16) 식년시 전시, 1831년(순조 31) 식년시 전시) 출제된 적이 있었다. 건물을 주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大學』의 '湯之盤'의 경우, 1825년의 식년시의 전시에 문제로 나왔던 것이 바로 이듬해 별시에서 또다시 출제된 사례도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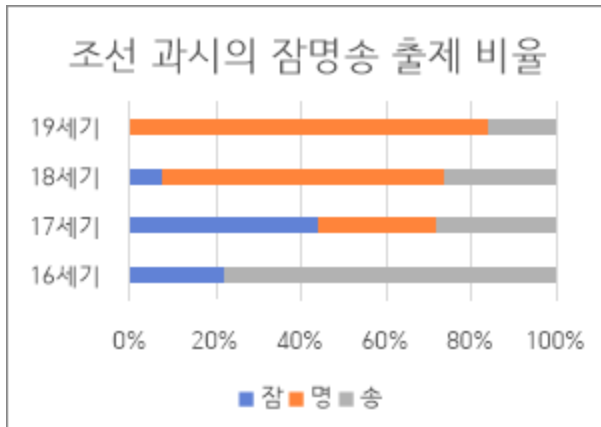
30) 『승정원일기』 영조 15년(1739) 3월 19일, "上曰: '庭試考課時, 觀幾句耶?' 泰溫曰: '不過四五句矣.' 上曰: '安知其不爲拙於前而巧於後耶?' 命均曰: '四五句, 亦可決其立落矣.' ... 泰溫曰: '... 表有穀率, 而此無定規, 考之易矣.'"

## 2. 잠명송의 출제 경향과 그 의미

이 절에서는 잠명송 각각의 문제는 어떤 비중으로 출제되었는지를 검토해 본다. 역시 전시에 출제된 잠명송을 대상으로, 시기별 출제 횟수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대	잠		명		송		계	
	출제	비율(%)	출제	비율(%)	출제	비율(%)	출제	비율(%)
15세기 이전	0	0	0	0	0	0	0	0
16세기	2	22	0	0	7	78	9	11
17세기	8	44	4	28	5	28	17	21
18세기	2	7	12	67	7	26	21	26
19세기	0	0	28	84	6	16	34	42
계	12	15	44	54	25	30	81	100

이를 다시 그래프로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와 그래프를 통해 확인되듯이, 16세기에는 頌의 비중이 가장 높았

고(78%) 17세기에는 箴이(44%), 18~19세기에는 銘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77%)이 확인된다. 16세기에 송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종종 연간에 출제된 잠명송이 전부 명이었던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종종은 특히 군신 관계에 중점을 두고서 송 문제를 자주 출제하였던 바, 앞서 언급하였던 최초의 잠명송 출제 사례인 1513년 별시의 “帝賚良弼頌”을 비롯, 1532년의 별시에서는 『漢書』의 “聖主得賢臣”을 출제하는 등, 고전에서 군신 간의 이상적 관계를 언급한 부분에서 문제를 취해 왔다.

다음으로 17세기에 비중이 높은 잠의 경우, 그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 문인들에게는 특히 수양론의 관점에서 중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과시에서 출제된 잠 역시 유가적 수양론과 관련된 고전의 구절들이 문제로 뽑히는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중종 31년(1536)의 별시 전시에 출제된 『서경』 「太甲」의 “愼終于始”을 비롯하여, 인조 13년(1635) 알성시에서 출제된 『論語』 「里仁」의 “見賢思齊”, 영조 4년(1728) 春塘臺試에서 출제된 『周易』 「繫辭下」의 “安不忘危” 등을 그 사례로 거론할 만하다. 잠은 특히 인조 연간에 총 5회 출제되어 가장 비중이 높았고, 과시가 많이 설행되었던 영조 연간에는 1회에 그치고 있다.

19세기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조선 시대에 출제된 잠명송 중에서 가장 높은 54%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명의 경우는 16세기까지는 출제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이후 1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고루 출제되었다. 특히 명은 정기 시험인 식년시에서 많이 출제되었던 것이 특징인데, 이는 잠이나 명이 식년시보다는 주로 별시, 정시, 증광시 등의 비정기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었던 것과는 비교되는 부분이라 하겠다.<sup>31)</sup>

명의 출제 경향은 두 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명의 문체적 특징과 관련되는 것으로 기물에 붙인 명이다.<sup>32)</sup> 이를테면 숙종 3년

31) 문체별로 식년시에서의 출제 비중을 정리해 보면, 송은 25회 중에서 6회(24%), 잠은 12회 중에서 2회(17%) 출제된 반면, 명은 44회 중에서 22회(50%) 출제되어 잠과 송에 비해 두드러지는 빈도를 보이고 있다.

32) 명이라는 문체 자체가 그릇 등의 기물에 귀감이 되거나 경계가 될만한 내용을 새겨



(1677) 알성시 등에서 출제되었던 『大學』의 '湯之盤', 영조 2년(1726) 식년시 등에서 출제되었던 『春秋左氏傳』 宣公 3년 조의 '禹鼎'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조선 과시에서 출제된 명은 이러한 기물명보다는 건축물에 붙인 명의 비중이 더 크다. 이러한 유형의 명은 특히 순조 연간 이후에 집중적으로 출제되었던 바, 순조 16년(1816) 식년시의 '仁政門'(창덕궁 인정전에 이르는 문), 고종 17년(1880) 증광시에서 출제되었던 '貳極門'(경복궁 및 창경궁의 동궁전의 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통상 과시 문제는 중복 출제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sup>33)</sup> 앞서 논급한 바와 같이 명의 경우는 중복 출제되는 사례가 많은 점이 눈에 띈다. 일례로 '春塘臺'의 경우 정조 1년(1777), 헌종 3년(1837), 9년(1843), 15년(1849)에 출제되어 총 4차례나 중복 출제되었으며, 심지어 헌종 연간에는 3차례나 중복 출제되기도 하였다. 앞서 사례로 들었던 '탕지반' 명의 경우에는 순조 25년과 26년 1년 사이에 같은 문제를 두 번이나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시험을 시행하게 된 동기, 당시의 정치 사회적 상황 등이 반영되어 불가피하게 문제가 중복 출제되는 경우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비교적 짓기 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명이 이렇게 빈번하게 중복 출제된 것은 앞에서 논술한 것처럼 18-19세기로 갈수록 과거 제도가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점차 문란해져갔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된다.

넣은 데서 비롯되었다. 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徐師曾, 『文體明辨序說』의 다음 내용을 참조할 것. '按 鄭康成曰: '銘者名也.' 劉勰云: '觀器而正名也.' 故曰: '作器能銘, 可以爲大夫矣.' 考諸夏商, 鼎·彝·尊·卣·盤·匜之屬, 莫不有銘, 而文多殘缺, 獨湯盤見于大學, 而大戴禮備載武王諸銘, 使後人有所取法, 是以其後作者寢繁, 凡山川·宮室·門·井之類, 皆有銘詞, 蓋不但施之器物而已. 然要其體不過有二, 一曰警戒, 二曰祝頌. 故今辯而列之. 陸機曰: '銘貴博文而濫潤, 斯言得之矣.'

33) 정조의 경우는 이를 위해 御題를 모은 『臨軒題叢』을 별도로 편찬하기도 하였다.

#### IV. 맺음말

이 논문은 조선 시대 과시에서 과문육체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잠명송 세 문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논의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잠명송은 조선 시대 법전에 문과 초시 및 전시, 진사시 초시에 출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문과 초시 및 진사시 초시에서는 전혀 출제되지 않았고, 현전 자료는 모두 문과 전시에서 출제되었다. 잠명송의 출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조선 후기에 다양한 논의들이 제출되었는데, 주로 잠명송의 난이도와 관련하여 합격자의 다양화(주로 鄉儒에 대한 배려),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다양한 문체를 출제하자는 주장과 함께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숙종 연간에는 과시 출제가 사료문에 집중된 점이 비판받으면서 잠명송 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점이 특징적이다. 다만 한편으로는 잠명송이 여타 문체에 비해 분량이 짧아 짓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이로 인해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요행으로 합격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조선 과시에서 출제되었던 잠명송의 문제 사례를 종합하여 통계를 내 보면 우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잠명송의 출제 비중이 커져 갔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과시 출제 문체의 다양화라는 내적 요인과 함께, 제도의 문란이라는 조선 후기의 사회적 문제점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잠명송 자체로 보면 잠명송의 출제 비율은 시기에 따라 송→잠→명의 순서로 유행하였고, 송과 잠의 경우에는 비정기 과시에 주로 출제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비율을 따져 보면 명이 과반을 차지하여 출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명은 궁중 건물을 주제로 자주 출제되었고 중복 출제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는 등, 조선 후기 과거 제도가 점차 무너져 가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과시에서의 잠명송을 주제로 다루면서, 잠명송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적 논의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이점을 적극 보완하면서, 잠명송 이외의 과시의 다양한 특수 유형에 대해서도 관심을 넓혀 가고자 한다.

## 〈參考 文獻〉

### ■ 자료

柳基一, 『龍西稿』, 개인소장본.

『經國大典』.

『續大典』.

『臨軒功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奎1143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朝26-22).

『箴銘頌』,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奎7678).

『頌引箴銘集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奎11603).

『國朝文科榜目』.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원문 텍스트), <http://kyudb.snu.ac.kr/>  
(원문 이미지)

『朝鮮王朝實錄』, <http://sillok.history.go.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조선시대 법령자료, <http://db.history.go.kr/law/>

### ■ 논저

강민구(2006a), 「韓國漢文學 箴銘의 特徵과 展開樣相」, 『동방한문학』 제31권, 동방한  
문학회, 141~180면.

\_\_\_\_\_ (2006b), 「朝鮮 後期 嶺南 士人 箴銘의 內向性과 觀念性」, 『한문교육논집』 제  
26권 제1호, 한국한문교육학회, 439~463면.

김동석(2015), 「과거 시험의 공동 제술에 대한 연구」, 『고문서연구』 제47집, 한국고문  
서학회, 117~147면.

김동준(2004), 「한국 器物銘의 역사와 성격에 관한 小考」, 『진단학보』 제97권, 진단학  
회, 85~109면.

김성훈(2009), 「麗末鮮初 箴銘類 研究: 『東文選』 所載 작품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제21호, 온지학회, 35~70면.

김윤조(2019), 「箴銘類 산문의 전통과 『古鏡重磨方』」, 『대동한문학』 제59권, 대동한  
문학회, 195~239면.

- \_\_\_\_\_(2015), 「箴銘에 나타나는 소통의 유형과 그 의미」, 『동방한문학』 제65호, 동방한문학회, 181~196면.
- 김종철(2008), 「한국 頌贊의 갈래분류와 문체특성」, 『대동한문학』 제28호, 대동한문학회, 189~210면.
- 박현순(2014),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131~172면, 269~312면.
- 이상욱(2020), 「조선후기 科策 참고서의 작법 요령: 『策型』과 『駢儷華藻』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72권, 열상고전연구회, 459~495면.
- 황만기(2013), 「科試 箴銘頌의 형식과 문체적 특성」, 『대동한문학』 제39권, 대동한문학회, 159~196면.
- 陶榕(1995), 「论科举制之殿试」, 『三明职业大学学报』, 三明: 三明学院, 1995年 第1期, 15-17項.

## Abstract

### *A Study on Zhenmingsong in Gwageo in the Joseon Dynasty*

Kim, Kwangnyeon\*

This paper attempted to clarify its meaning by checking the overall three Zhenmingsong(箴銘頌) styles in Gwageo(科擧) during the Joseon Dynasty.

Zhenmingsong was stipulated in the Joseon Dynasty law that it could be set a question in Mungwa Chosi(文科初試), Jeonsi(殿試), and Jinsasi Chosi(進士試初試), but it was not set at all in Mungwa Chosi and Jinsasi Chosi, and all current materials were set in Mungwa Jonsi. Regarding Zhenmingsong questions, various discussions were mainly submitt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need for various styles emerged as one of the ways to diversify successful applicants and select competent talents. In particular, during King Sukjong's reign, the need to set Zhenmingsong questions in Gwageo was raised as it was criticized for focusing on Pianliwen(駢麗文). However, on the other hand, several arguments have been raised about the possibility that Zhenmingsong is relatively easy to write because it is shorter than other styles, and this may lead to people passing by luck despite their lack of competence.

When statistics are compiled by compiling Zhenmingsong question cases that were set in Gwageo of the Joseon Dynasty, it can be seen that the proportion of Zhenmingsong questions increased toward the late Joseon Dynasty. It is believed that the internal factor of diversification of style and the social problem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e disturbance of the system, played a role in this. In terms of Zhenmingsong itself, the ratio of Zhenmingsong questions was popular in the order of Song→Zhen→Ming depending on the period, and in the case of Song and Zhen, it was mainly set in irregular Gwageo. In terms of the total ratio, Ming accounted for the majority, and the proportion of questions was overwhelmingly high. In particular, Ming is meaningful as an example of the situation in which the Gwageo system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gradually

---

\* Research Professor of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Korea University / light1979@hanmail.net

collapsing, with frequent questions on the theme of royal buildings and many overlapping questions.

【Key words】 Gwageo(科擧), Gwasi(科試), Zhen(箴), Ming(銘), Song(頌), An examination questions(科題)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완료일 : 12월 12일, 게재확정일 : 12월 20일

